

UPE수지 수요 둔화

범용시장 성숙단계 ... 신규수요 창출 시급

국내 UPE수지 수요가 둔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94년 국내 UPE수지 수요는 93년 7만5000톤대비 6.6%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UPE수지 수요가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전반적인 국내 건축경기의 침체와 함께 국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적층용·마블용 등 범용제품시장이 어느정도 성숙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내 UPE수지 수요현황(용도별) (단위 : M/T, %)			
구 분	1993	1994	구성비
F R P 용	38,461	41,000	51.1
주 형 용	15,197	16,200	20.2
도 료 용	9,182	9,700	12.1
S(B)MC용	7,000	7,700	9.6
단 추 용	5,160	5,500	6.8
합 계	75,000	80,100	100.0

또 신규수요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성형품의 생산기술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94년 용도별 UPE수지 수요를 보면 FRP 용이 4만1000톤으로 전체 사용량의 5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용형이 1만6000톤 20.2%, 도료용 9700톤 12.1%, SMC·BMC용 7700톤 9.6%, 단추용 5500톤 6.8%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FRP용은 일반적층용 2만2000톤, 선박용 8000톤으로 각각 66.0%, 23.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당분간 이 두분야가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며 내식용의 용도개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층용의 경우 기존의 PE수지에서 UPE 수지로 대체되고 있어 물탱크 분야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기업들의 난립으로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형용 시장은 마블용이 1만3000톤으로 80.2%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료용 시장은 목재용이 7700여톤 79.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주형용 시장은 성형기업들의 영세성으로 인해 정체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제품 생산과정에서 UPE의 성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제품의 시공·운반과정에서의 불량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UPE수지는 FRP시장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최근 강화되고 있는 환경관련 산업의 성장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93년까지 지속된 불황으로 10%가량 하락한 UPE수지 가격은 기초원료의 전반적인 가격상승과 엔고의 영향으로 큰폭의 가격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류별 가격을 보면 Ortho타입이 Kg당 1500선에 거래되고 있으며, ISO타입은 Kg당 2000원대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Bisphenol 타입은 Kg당 3300원선에 거래되고 있으며, Vinylester타입은 3700원대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최근의 가격상승은 UPE수지 기초원료 가운데 특히 SM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1995/3/13>